

제 274호 · 2014년 9월 17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물류 정책·사업동향

1. 요미우리 신문, 일본의 북극항로 전략적 진출 강화 지적
2. APMT, 라틴 아메리카 항만에 대한 민간 투자 필요성 제기
3. DHL, 말레이시아에 대규모 보세창고 건립
4. 중국, 물류기업에 급증하는 헬스케어 시장 개방

물류 시장동향

1. 2014년 8월까지 러시아 항만 물동량 6.4% 증가
2. Rostec과 Shenhua社, 극동러시아 석탄 터미널 건설 투자

공지사항

1. 중소 · 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 · 사업동향

□ 요미우리 신문, 일본의 북극항로 전략적 진출 강화 지적

- 일본 요미우리 신문(読売新聞)은 9월 8일자 보도에서 일본 정부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해 전략적인 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 신문은 북극항로가 세계적으로 북극 자원 개발 및 항로 개발에 참여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다
- 일본은 미쓰이 상선(Mitsui O.S.K. Lines)이 북극항로 이용을 위한 계획을 서둘러 발표하는 등 북극항로 진출에 매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미쓰이 상선은 2018년부터 정기운항에 나설 예정으로 러시아 북부에서 생산된 LNG를 유럽지역으로 연중 수송할 계획이며, 일본과 아시아 지역으로는 해빙기인 6~11월 중 수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일본경제신문; 日本經濟新聞, 2014.7.9)
 - 이 같은 보도로 일본이 아시아 최초로 상업운항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우리나라 글로벌스와 SK에너지가 9월 말 상업운항에 들어갈 계획임
-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북극항로는 일본과 유럽 주요국을 잇는 기존 항로인 수에즈 운하를 통한 물동량의 약 60%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았음
 - 특히 북극항로는 기존 항로에 비해 해적 관련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지적함
- 이 같은 북극항로의 개발 및 진출 가능성에 따라 일본 정부가 민간 부문과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전략적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 일본정부는 이 같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5년 11억 엔(약 11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2015년 이후 자원 개발을 위한 북극 해저 탐사 및 항로개발에 투자할 계획임
- 특히 이 신문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사회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북극항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선결조건이므로 이를 위한 장기 전략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또한 중국은 쇄빙기능을 갖춘 선박을 투입하여 북극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의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자료 : 読売新聞, 2014.9.8 / 日本經濟新聞, 2014.7.9.

김태일 부연구위원 (☎ 02-2105-2755, ktizorro@kmi.re.kr)

□ APMT, 라틴 아메리카 항만에 대한 민간 투자 필요성 제기

-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컨테이너 교역에 필요한 민간 인프라 투자를 장려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UN의 예측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의 인구는 2025년에 6억 9천만 명 내지 EU국가들의 총 인구보다 2억 명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3년에 전년대비 약 1% 증가한 4,570만 TEU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에서는 지난해에 860만 TEU의 물동량을 처리해 유럽의 3위 항만인 Antwerp항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
- 하지만 2014년 World Economic Forum에서 평가한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항만 인프라 순위는 전체 148개 대상국 중에서 각각 131위, 110위, 99위에 그치고 있음
- APMT의 CFO인 Christian Moller Lauren은 마이애미에서 열린 Trade Americas & Connect Americas 엑스포에서 라틴 아메리카 항만의 낮은 생산성을 해결하고 항만 인프라 개발을 위한 새로운 활성화 전략 없이는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음
- 정책 입안자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에게 실현 가능한 조건을 제시해야 할 것임
- 항만 및 교통 인프라 투자를 추진시키고 민간 부문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성공적인 전략으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양허 조건 제시가 중요해지고 있음
- 선박의 크기와 터미널 처리량 사이의 불일치는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더욱 심각한 실정임
- 선사들은 새로운 대형 선박을 주요 동서항로에 배치하면서 구형선박을 라틴 아메리카에 재배치 했는데, 재배치 선박도 상대적으로 대형선이기 때문에 항만과 도로, 철도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임
- Drewry Maritime Research의 항만 및 터미널 수석 애널리스트인 Neil Davidson은 2006년 이후로 아시아-유럽항로를 운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의 평균사이즈가 50% 증가한 반면 남미 동부해안에 기항하는 선박의 사이즈는 140%가 증가했다고 밝힘
- APMT와 같은 GTO들은 라틴 아메리카 항만에 투자하고 싶어 하지만 관료적·정치적 장벽 뿐만 아니라 민영화에 대한 노동부문의 반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의 경우에도 투자여건 변화는 미미한 실정임
- 최근 브라질 항만터미널 협회는 다음 달 열리는 세 명의 대통령 선거후보에게 정치논리에 빠져있는 브라질 항만의 회생과 발전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음
- APMT는 라틴 아메리카 진출을 확대할 계획

- 현재 APMT는 작년에 개장한 브라질 산토스 Brasil Terminal Portuario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데, 브라질 정부가 승인한다면 북부와 북동부지역의 터미널 확보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고 발표했음
- 또한 APMT는 산토스뿐만 아니라 모인, 코스타리카, 라자로 카르데나스, 멕시코에서 진행중인 새 터미널 개발 사업은 물론 칼라오, 페루의 주요 터미널도 확장할 계획임

자료 : www.joc.com, 2014.9.5.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 DHL, 말레이시아에 대규모 보세창고 건립

- DHL Supply Chain은 말레이시아 샤알람(Shah Alam) 지역에 3천1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말레이시아 최대 규모인 약 백만 평방피트의 신규 보세창고를 건립 중임
- DHL Supply Chain 말레이시아의 Prakash Rochlani 이사는 “최근 말레이시아 계약 물류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말레이시아를 DHL의 성장전략 핵심국가로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했으며, 이러한 대규모 보세창고의 건립은 DHL의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고 언급함
- 신규 시설은 말레이시아 최초로 이중 램프 시스템(double-ramp system)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비롯하여 FMCG¹⁾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창고 시설 및 공급망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임
 - DHL의 오토모티브, 엔지니어링, 제조,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포트폴리오 등의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신규 시설은 고객의 공급망 활동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co-packing 등과 같은 다양한 부가가치 활동을 제공할 예정임
- DHL은 DHL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신규시설의 설계와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복층 구조의 신규시설은 다양한 제품군에 대응 할 수 있는 111개의 하역장(loading docks)을 보유하고 있으며, 결합제어 및 환경제어 시스템 등을 갖추 예정임
 - 보안 기준 TAPA²⁾의 class A를, 그리고 품질관리 기준 ISO9001:2008을 각각 획득했음
- 신규 시설은 Penang과 Johor 지역에서 DHL이 개장한 세 번째 시설로, 완공 후 말레이시아 북부와 남부 반도 지역의 물류업무를 분담할 예정임

자료 : www.payloadasia.com, 2014.9.10.

손보라 연구원 (☎ 02-2105-2914, bora62@kmi.re.kr)

1) FMCG(fast moving consumer goods)는 세제, 세면용 제품군, 플라스틱, 종이류, 전구, 유리제, 포장된 음료와 음식, 소형 가전제품,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제약제품과 같은 소비 속도가 빠른 비내구성 소비재를 의미함.

2) 기술자산보호협회(TAPA, Technology Asset Protection Association)의 화물 보안 기준(FSR-Freight Security Standards)으로 인증 심사 결과는 A, B, C 단계로 구분되며 최고 등급은 Class A임.

□ 중국, 물류기업에 급증하는 헬스케어 시장 개방

- Bain & Company³⁾에 따르면 2020년에 중국의 헬스케어 시장은 9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중국 헬스케어 시장은 거대한 시장으로, 해외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개방이 더딘 분야 중의 하나임
 - 다만 중국 헬스케어 시장에 해외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물류시장에 좋은 징조로 작용함
 - 올 5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 병원에 개인과 해외투자를 허용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중국식약청(CFDA)이 처방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함
- 올 8월 월마트의 Yhd.com⁴⁾은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공식적으로 허가 받음
 - 회사에 따르면 적어도 10개의 의약품 소매업체가 Yhd에 판매 상점을 개설함
 -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 의약품 시장의 가장 큰 분야인 처방약의 판매 자격을 얻지는 못했음
 - 처방약 판매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Yhd는 올해 말까지 20만개 이상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목표로 함
 - 현재 Yhd는 유사 사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JD.com⁵⁾과 같은 다수의 전자상거래 경쟁업체들에 비해 다방면에서 앞서고 있음
- Ti(TransportIntelligence)⁶⁾에 따르면 중국의 의약품 물류 시장은 약 76억 유로로 2012년보다 14.3% 증가함
 - 물류기업들에게는 좋은 기회이며 여러 면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음
- 올해 초 UPS는 베이징에 계약 물류 유통시설을 개장했음
 - 6,500sq.m(약 1966평)규모의 창고는 베이징 캐피탈 국제공항에 인접해 있고 베이징 도심 지역에는 4시간 이내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며 중국의 주요 도시에는 익일 배송이 가능함
 - 베이징, 상하이, 그리고 청두에 유사 창고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적 주문 이행과 고객들에게 더 나은 창고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됨
- FedEx는 상하이 허브에 헬스 관련 제품을 위한 창고를 확장하였으며 DHL은 상하이와 베이징에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센터를 운영함
 - FedEx와 UPS는 중국 정부로부터 국내 배송 면허를 취득할 예정임

3) 세계 3대 전략 컨설팅 회사 중 하나로 전 세계 3천5백여명 정도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약하고 있음.

4) 중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로 2008년에 오픈했으며 2천 4백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1조 2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림.

5) 중국 전자 상거래 업체이며 베이징에 본사가 있고 중국에서 거래규모 기준으로 가장 큰 B2C 온라인상거래 업체 중 하나임.

6) 영국 물류전문 신문으로 세계 물류시장 조사 및 분석, 교통 인프라 정보 등을 제공함.

- 하지만 두 미국 기반 회사는 Sinopharm⁷⁾과 같은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중국회사와 경쟁을 해야 할 것임
- 중국 헬스케어 산업은 특수한 물류와 운송이 요구됨
 - 중국 시장은 아시아에서 사업 기회를 찾고 있는 물류기업들에게 매력적인 곳임
 -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 잘 알고 네트워크 구축 준비가 되어 있다면 중국시장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임

자료 :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4.9.4.

양규석 연구원 (☎ 02-2105-2928, yks8065@kmi.re.kr)

7) 중국 최대 의료·헬스 관련 회사로서 연구, 제조, 그리고 배송업무까지 운영하는 회사임.

물류시장동향

□ 2014년 8월까지 러시아 항만 물동량 6.4% 증가

- 2014년 1-8월 동안 러시아 항만들이 전년대비 6.4% 증가한 412.4백만 톤의 화물을 처리함
 - 수출물동량은 328.4백만 톤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한 반면 수입물동량은 29.2백만 톤으로 5.3%가 감소했음
 - 그 외에 통과화물은 4.6% 증가한 32.4백만 톤, 연안화물은 1.3% 감소한 22.4백만 톤임
- 드라이 벌크 화물은 전년대비 13.5% 늘어난 189.2백 만 톤에 달함
 - 화물별로는 석탄 77.6 백만 톤(13.5% 증가), 컨테이너 화물 31.2백만 톤(6.4% 증가), 곡물 18.2백만 톤 (50% 증가), 철 15.9백만 톤(6.1% 증가), 광물질 비료 9.9백만 톤(19.2% 증가), 스크랩 3.2백만 톤 (40.8% 증가), 냉장화물 2.4백 만 톤(1.3% 증가)을 기록함
 - 반면 광석류는 전년대비 17.5% 감소한 4백만 톤, 비철 금속은 전년대비 19.6% 급감한 2.1백만 톤임
- 액체 화물은 전년대비 1% 증가한 223.2백만 톤임
 - 원유는 126.5백만 톤으로 전년대비 7.8% 감소했지만 유류 제품은 15.1% 증가한 86.1백만 톤, 액체 가스는 12.3% 증가한 8.2백 만 톤을 기록함
- 러시아 항만들 중 극동지역 항만의 물동량이 13.2% 증가한 108.4백만 톤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반면 북극해에 위치한 항만의 물동량은 24.9% 감소한 23.4백 만 톤을 나타냄

자료 : www.portnews.ru 2014.9.9.

이하림 연구원 (☎ 02-2105-2954, harimyi@kmi.re.kr)

□ Rostec⁸⁾과 Shenhua⁹⁾, 극동러시아 석탄 터미널 건설 투자

- Rostec사와 Shenhua사는 극동러시아 Vera항만의 환적 터미널 건설을 포함한 탄광 프로젝트에 1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 Rostec과 Shenhua사는 MOU 체결을 통해 공동으로 극동러시아와 시베리아 지역의 광산 산업과 교통 인프라를 개발하고 중국에 전기를 송전하는 고압 송전선을 구축할 예정임
 - Rostec의 자회사인 RT Global Resources는 연해주 지역 근처의 Vera항만에 석탄 환적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임

8) 러시아의 첨단 산업 제품을 개발, 제조 및 수출하는 기업.

9) 중국의 국영 광업 및 에너지 회사로 중국에서 가장 큰 석탄 생산 기업.

- 개발 예정인 석탄 터미널 시설은 2015년 착공 될 예정이며, 826헥타르의 부지와 연간 2,000만톤의 처리능력을 갖추게 됨
 - 이 석탄 터미널은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운영될 예정임
-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아무르 지역과 중국 북부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러시아 에너지 산업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짐

자료 : www.portfinanceinternational.com, 2014.9.5

김주혜 연구원 (☎ 02-2105-4985, joohye915@kmi.re.kr)

<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는 **중소·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과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상기업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포함
 -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기업

□ 대상사업

- 해외 물류시설(물류단지·센터·창고·항만·복합물류 터미널 등)의 개발·투자·운영 사업
- 해외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지사·사무소 설립 사업
- 상기 관련 M&A 및 기타 해외 물류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 지원내용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 진출희망 지역 또는 추진하려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투자 여건 등 기초정보에 대해 단기 컨설팅 지원
 - 현지 경제·무역·인프라·물동량 현황, 투자 관련 법·제도 등에 관해 기업이 문의 시, KMI가 보유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문의사항 관련 정보 제공
- 컨설팅 결과물은 문서 형태로 제공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 공동조사(KMI 연구진과 물류기업 임직원이 동반)를 수반한 중기 컨설팅 지원
 - 필요시 해외투자 유관기관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와의 상담 주선
 - ※ 현지 공동조사에 수반되는 출장비 등은 KMI와 해당기업이 각자 부담
- 조사 종료 후 공동조사 보고서 제공

□ 지원사업별 신청방법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별첨 1)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별첨 2)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 담당자 : 김은우 전문연구원(hisgrace@kmi.re.kr), 손보라 연구원(bora62@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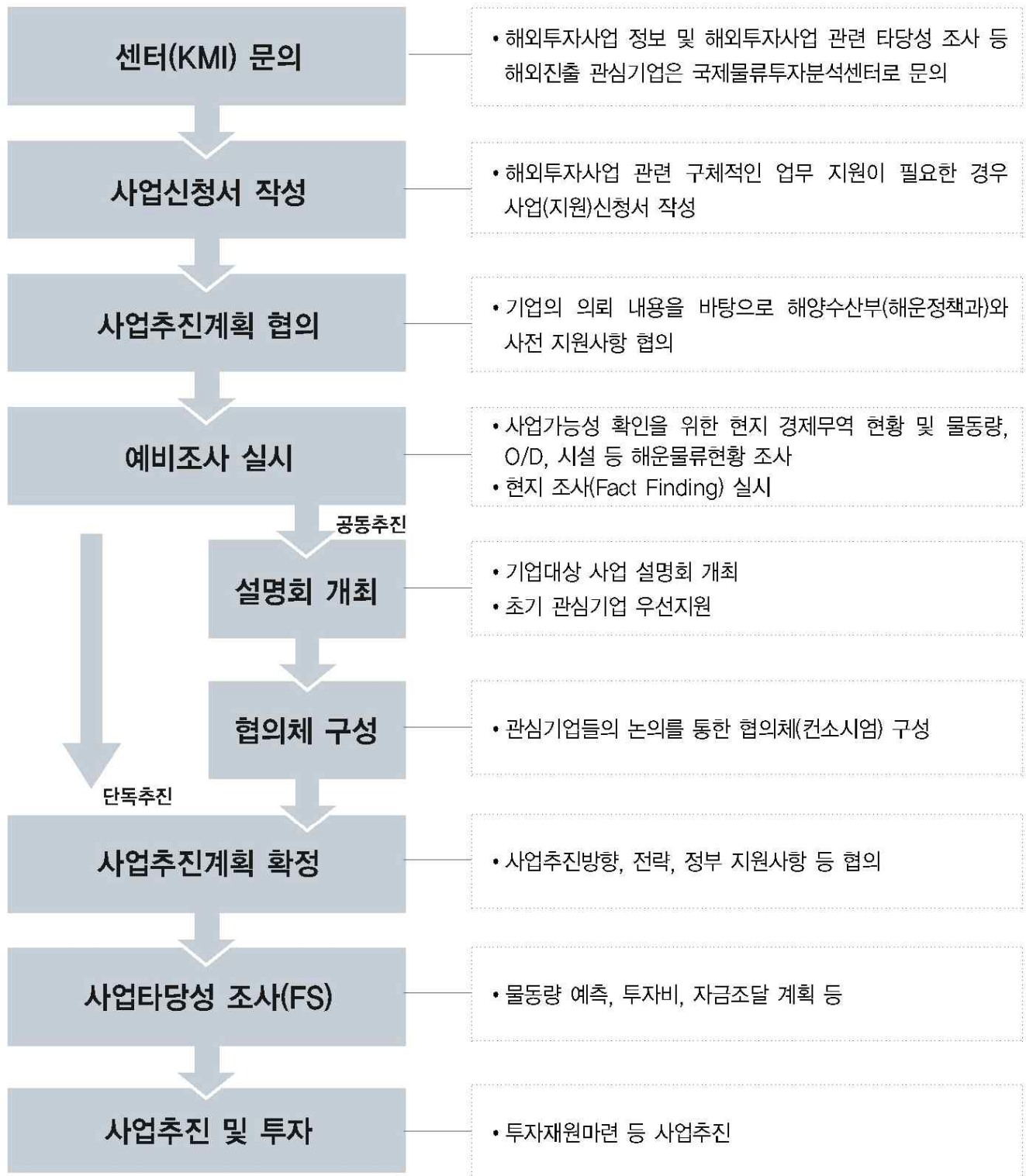
□ 신청서 평가 및 기타

- 선정기준
 -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시급성 · 난이도, 정책적 중요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 · 지원
 - 선정결과 발표 : 신청서 접수 후 2~3주 이내 KMI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지
 - 유의사항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김은우 02-2105-2828 / 손보라 02-2105-2914)로 문의
-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사업 추진절차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